

통일교육 :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

許文寧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문제의 제기

“북한 동포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우리 마음에서 먼저 청산해야 한다는 말씀에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는 아직도 북한에 대한 증오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북녘동포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몇 년 전 어느 선교신학원에서 필자가 ‘한국교회와 민족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한 이후 만난 어느 장로님의 고백이었다. 사실 필자가 오히려 그 장로님의 고백에 충격과 은혜를 받았다. 북한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장로님들에게까지 남아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일독일에는 국토상의 장벽이 무너졌으나, 마음의 장벽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경제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제반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진정한 통일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한 세대(약 30여 년)의 시간이 경과해야 할 것입니다.” 1995년 8월 베를린에서 만난 구동독 처녀와 구서독 정치학자의 통일독일에 대한 현황 평가와 장래 전망이었다. 필자는 일부 구동독인들의 좌절감과 일부 구서독인들의 불만감에 기초한 고백과 불평들을 들으면서, ‘국민들 심정상의 통일이 이룩되지 않는 한 제도·국토상의 통일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2000년 5월 독일통일 10주년 행사를 목전에 두고 독일을 다시 방문하였다. 마음의 통일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구동독 주민들은 통일 이전보다 잘 살게 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구서독인들에 대한 상대적 가치박탈감 심화에 따른 불만을 주장하였다. 구서독주민들 또한 지난 10여 년 간 구동독 지역에 약 1조 5000억 마르크(DM)의 투입에 따른 사회복지수준 저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 결과 마음의 장벽은 해소된 것이 아니라, 더 높아졌고 2-3세대가 지나가야 해소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의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임을 재확인하였다.

“북한에는 미·일·중·러시아 등 주변 4국의 첩자들이 상당수 침투하여 활약하고 있다.” 1994년 10월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실린 기사 내용이다. “서울은 21세기 미·일·중·러 주변 4국 에이전트의 본격적인 활동무대가 되고 있다.” 2002년 3월 국내 시사주간지의 기사이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불안정했던 한반도 정세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결과 갈등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1년 1월 미국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등장 이후 남북관계는 잠시 소강국면에 머무르다가, 9월 남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화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02년 1월에는 북한을 이라크·이란과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미사일·핵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공격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21세기 동북아 신질서 재편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주변 4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주변 4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제 문제적 성격을 띄고 있다. 우리의 평화롭고도 민족주체적인 대응이 준비되지 못할 경우, 우리 민족은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통일되고 독립된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20세기의 과제를 여전히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작년말부터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2003년 완공예정이었던 북한 신포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지연된 데 기인한다. 미국은 북한의 과거 핵활동규명 특별사찰을 금년 말 또는 내년에는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미사일 모라토리엄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불신과 강경정책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대미 맞불 정책과 충돌할 경우, 한반도는 제2의 구한말 사태를 넘어서는 전쟁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일한국에도 통일독일 만큼이나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6·25라는 동족상잔을 겪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세속적 가치관을 초월하고, 하나님 중심의 절대사랑을 실천하려는 100만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직면하게 될 제반문제들은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을 감수하려는 이들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잘 해결되어갈 것 입니다.” 몇 년 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필자가 주장한 말이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통일 문제에 대해 성경적이고도 현실·합리적인 견해와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면, 통일한국을 이루어 가는 과정은 순탄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교회가 취해야 할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통일 교육의 내용과 방법

1. 기본 방향

교회의 통일교육이 교회 본연의 사명인 ‘복음화’와 민족의 과제인 ‘통일’에 기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기본 방향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역사의 주인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야 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구속·섭리의 역사

가운데 관리자(steward)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1945년 민족분단은 일제하 한국 교회가 타락하여 신사참배를 용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단 50년이 되도록 민족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록 한국 교인들이 눈물어린 기도를 할 지라도, 아직 하나님 중심주의에 확고하게 서있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지 않은 것임을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전환기적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냉전적 상황에서는 냉전적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탈냉전적 상황에서는 탈냉전적 인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반도에는 냉전적 조류와 탈냉전적 조류가 교차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과 김일성의 사망으로 탈냉전적 조류가 흐르고 있으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및 김정일 중심의 후계체제가 지속됨에 따라 냉전적 조류도 흐르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민족의 도약과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로서는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인식을 고집할 것도 아니지만, 상황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탈냉전적 인식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전환기적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에 있어 전환기적 인식이란 북한의 정세와 대남 통일전략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인식하되, 그 대응방안에 있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의 의도 분석에 연연하던 구태의연한 상황의존적 접근태도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를 평화스럽게 민주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염두에 둔 목표지향적 접근태도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통일문제의 이중구조적 성격을 이해하고, 민족주체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통일문제는 4,000만 한국 국민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현상유지적 과제과 7,000만 한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현상타파적 과제의 이중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는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민족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4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있는 국제문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문제를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통일문제의 국제적 비중은 더욱 증대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뜻과 바램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최근 북·미 기본합의서 체결, 중국 및 러시아의 대북 재접근, 일본의 대북 추파 등 주변 4국의 대북한 및 한반도 영향력 확대 노력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 한민족의 평화롭고도 주체적인 대응이 준비되어야 한다.

넷째, 심정적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1945년 국토의 분단, 1948년 정부의 분단, 1950년 한국전쟁에 따른 마음의 분단 등 3중의 중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많은 정치가들과 통일전문가들은 주로 정치·국토적 통일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심정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치·국토적 통일은 또 다른 갈등과 분단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심정적 통일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진정한 통일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북녘 동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남한 국민들에게 심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통일 교육의 내용

교회에서 다루어야 할 통일교육의 내용은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핵심적 또는 불변적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부차적 또는 상황적 내용이다.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핵심적 내용으로 생각되는 부분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의 위상과 의미를 성경적 관점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민족을 살리는 통일운동은 올바른 통일정책에서 비롯되며, 올바른 통일정책은 통일의 위상과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의 의미에 대하여 남·북한의 정부가 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국민들 각자도 세계관, 국가관, 이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통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는 것이며, 통일이 아무리 우리의 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를 파괴하며 이루어지는 통일은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통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사역'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적 생활양식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의 당위성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북한은 '남조선 인민의 해방'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남한은 '민족적 고통 및 불이익 해소'라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대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데올로기나 실용주의에 근거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람들이 서로 돕고 평화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규범(창 1:28)에 대한 순종이며, 민족에 대한 사랑은 모세와 바울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명령(요15:12)에 대한 순종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동포와 한민족에 대한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는 통일의 당위성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하나님 나라' 지향적 관점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소망이자 현실적 과제인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통일한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경제사상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은 참된 공동체적 창의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 사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왜곡된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종식시킬 성경적 사회를 의미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체주의(individualism)가 아닌 인간주의(personalism)를, 집체주의(collectivism)가 아닌 공동체주의(communalism)를 토대로 성경적 원리와 현실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국가체제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한국의 사명을 선교지향적 관점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은 전 세계에 희망을 주는 성경적인 '모범국가'가 되어야 한다. 사회주의는 소련의 해체로 인

하여 더 이상 인류의 희망이 아님이 실천적으로 입증되었다. 자본주의 또한 그 모범국가로서 일컬어지던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이 최근 종언을 공식적으로 고함으로써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국가체제가 인류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통일이한국이 성경적 경제사상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를 이루어갈 때, 온 세계에 빛과 희망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통일이한국은 ‘평화국가’가 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나 21세기 아세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첨예한 대결이 예상되는 새로운 국제질서 가운데 주변 4국과 평화의 길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선·후진국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주는 중재자(peace-maker)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이한국은 또한 ‘선교국가’가 되어야 한다. 지난 5000여 년 간 약소국으로 각종 설움과 박대를 받았던 이 민족에게 지난 100년 사이에 놀라운 영·육 간에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데는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땅끝까지 가서 모든 국가에게 새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뜻이 있으심에 틀림이 없다.

3. 통일 교육의 방법

교회가 위와 같은 내용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첫째,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운동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과 한민족에게 평화 내려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물론 미국·일본·중국·소련 등 주변 4강이 자국의 이익 증대를 위해 첨예한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척박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이와 같은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성세대의 희생과 노력에 기인한다. 그러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이러한 희생과 노력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잊지 말고 감사드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북녘동포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과 세속적 가치들을 절대적 가치로 받아들였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기간 냉전논리에 함몰되어 북쪽의 동포들은 남쪽을 ‘원썩’로, 남쪽은 북쪽의 동포들을 ‘빨갱이 또는 적’으로 규정하고 서로 증오했으므로써,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또한 상대적 가치인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절대적 가치로 신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독특함인 공동체성과 신본주의를 상실케 되었다.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신앙의 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동포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황금 만능주의와 세속적 성공주의 그리고 극단적 이기주의에 휩쓸려 삶으로써 형제사랑·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 또한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초월하지 못한 것과, 성경적 입장에 철저히 서려고 노력하지 못했던 점도 회개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통일을, 그리고 이 일에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남북한 간에는 1972년의 7·4 공동성명과 1991년의 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1992년의 남북 부속합의서 등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수많은 문건에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던 국가들 가운데 월남과 예멘과 독일은 이제 통일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인적·물적 교류를 하고 있다. 한민족만 인적·물적 교류를 통제할 채, 첨예한 냉전적 대결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 북한 체제도 안정적으로 변화·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북녘의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한다. 북녘의 동포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남쪽의 국민들에게 물질적 희생과 정신적 사랑을 요구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북녘동포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희생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고, 또한 반드시 나와야 한다.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시대적 사명을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둘째, 통일한국의 마스터 플랜 설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의 성경 연구에 대한 열의를 더욱 북돋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공부 또는 경건의 시간을 생활화하여,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원문제'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구원이후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의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성경은 우리의 행위의 법칙 또는 준칙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인 성경을 토대로 정치·경제·사회·군사·문화·교육 등 전반에 걸쳐 복음적인 대안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공부만 열심히 하면 통일문제에 대한 대안을 기계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성서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상황에 대한 고려도 병행토록 권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절반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한의 현실과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민족통일에 대한 교인 개개인의 헌신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최근 북한을 잠행 취재하여 국내·외 언론을 통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기자 한 분을 만났다. 잠행 취재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이의가 있으나, 취재를 시작하여 무사히 마치고까지 그 분이 정성 들었던 준비에 대해서는 많은 감동을 받았다. 예컨대 그는 민족의 통일이 남·북한 양측의 정치지도자들에 의해서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자신을 주님의 통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가기 위해 8년 이상의 세월을 연구하는데 투자하였고, 4차례에 걸친 북한방문을 위하여 14만 달러의 돈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성과를 거둘 때, 곧잘 그 이면의 눈물과 땀은 생각하지 않고 부러운 마음과 시기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나 그가 우연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자기희생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함으로써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민족통일을 위한 교회 차원의 준비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교회의 경우를 살펴볼 때, 통독과정에 있어 서독인구의 85%가 되는 신·구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공헌은 참으로 큰 것이었다. 독일 교회는 분단 초기부터 민족화해와 평화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통일이 동·서독 교회의 소망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서독 정부간의 의견차이를 해소하는데 있어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더욱이 1983년부터는 동·서독 교회가 공동으로 <평화주간>을 설정하여 동·서독간의 화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준비 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에 대한 사랑과 이의 구체적 실천으로서 우리와 다른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 및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를 교회가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건과 절제 그리고 나눔의 생활화를 통하여 북한주민들과 더불어 살려는 의식을 북돋우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회 통일교육의 내용을 보다 심화하기 위하여 교회연합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각 교단·선교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와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 및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협력사업화하여 한국 교회의 공동과제로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연구결과를 교인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회자의 설교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세계는 바야흐로 21세기로 돌입하고 있다. 21세기의 시대 성격에 대하여 어떤 이는 탈이데올로기의 시대를, 어떤 이는 탈민족국가의 시대를, 어떤 이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역사적 전환기에 서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 민족은 과거 19세기말 근대화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여 국권의 상실과 민족의 분열을 결과적으로 겪게 되었다. 이제 20세기말 탈냉전(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민족통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룩하지 못할 경우 우리 민족은 역사의 발전도상에서 다시 한번 뒤쳐지게 될 수도 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응답을 잘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민족통일 문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결하고 성실한 노력이 전개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과 통일한국을 통하여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